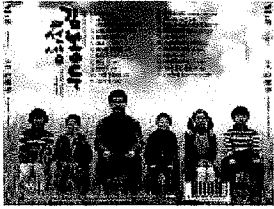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어린날의 학교

-양희은 노래-

(영화 '선생 김봉두'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영화가 끝나면서 오래된 학교를 배경으로 들려질 때에는 가슴속의 눈물로도 모자란 잊혀졌던 동심이었습니다)



미루나무 따라 큰길 따라
하늘에 올라가는 구름따라
시냇물을 따라 한참을 가면
어려서 내가 다니던 우리학교
작은동산 위에 올라보면
우리학교 한눈에 다 보이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학교
같이 놀았던 친구
어디서 무얼 하든지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음~~
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결석은 하지 말아라
공부를 해야 좋은사람 된단다 음~~
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미루나무 따라 큰길 따라
하늘에 올라가는 구름따라
시냇물을 따라 한참을 가면
어려서 내가 다니던 우리학교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0월 10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인생 예고장”

하나님에게 따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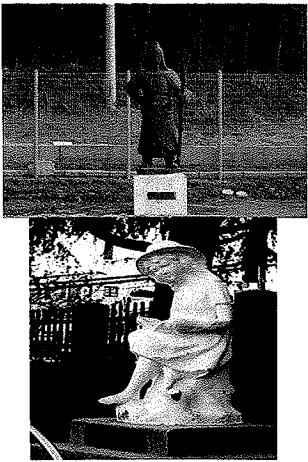


회사에 잘 다녀서 말은 바 책임있게 업무를 잘 수행하여
더 나은 직책을 부여받기 직전이고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어 더 키워야 하고
집도 약간 더 넓은 데로 옮겨 안정을 찾아야 할
할일이 많은 40대 유능한 직장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사이도 없이 하늘로 불려오게 되자 그 젊은이는
하나님에게 항의하듯 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고장 한 장도 없이 갑자기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와 있던 친구들도 한 뭉거들며
"웁소, 웁소" 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지긋이 눈을 감고
"난 언제나 늘 누구에게나 예고장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던 말인가?
그것도 4종류나 되는 예고장을 보냈는데, 오늘도 보냈는데.." 라며..
1..... 노을, 2..... 가을, 3..... 질병, 4.....타인의 죽음을..

◀그뎨 그랬지▶ 학교운동장에 있던 동상
우리가 자랄 때 '이순신 장군' 이나 '책 읽는 소녀' 상은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나 있었습니다. 기개있고 교양있는 인격체로 자라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 획일적인 사고가 당시 교육의 현실이었음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밤이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김유신 장군' 동상이 싸운다는 말에 밤에 조심스럽게 들여다 본 적이 있는 그 운동장의 동상. 내 아이가 그때의 나만큼 자라난 지금, 아이와 함께 그 동상이 있는 운동장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 믿음의 명상 ▶
늘어 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냉해 지지 않습니다.
- 조지 물러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율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1 (시 28)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241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박일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 17:8-1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 이름의 능력(2) 여호와 뜻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04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11구역,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10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3	노은숙	한정옥	7구역	3	구역예배(8)
10	박일영	허미숙	8구역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17	이광희	최현철	9구역	17	식사친교주일 은 십자가성가대(학생부)
24	이규임	강은미	10구역	24	Labour Day(25)
31	이재영	권영희	11구역	31	이삭줍기주일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임세영 집사(2남선, 1구역), 세운 50 Lyttleton Ave. Forrest Hill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일시> 화요일(12일) 오후 1시 교회
*꾸준히 뒤에서 기도의 능력을 담당하는 '믿음의 어머니'의 간구함이 있어 갈보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주일은 "은 십자가성가대" <학생부>
*얼마전에 제1여성교회로부터 시작한 '은 십자가성가대' 였는데 어느새 8개선교회를 마치고 학생부까지 담당케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라는 말도 이전 너무 진부할만큼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 수요일예배
*차근차근 배워가는 수요일 밤의 성경강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다면 행복하게 돌아가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6:00AM>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부지런한 인간이고 싶을 뿐입니다. 평일에는 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십시오.
- 뉴질랜드장로교 소속교회 "장로교한인교회협의회" 주관 부흥회(예고)
* <일시> 10월 20일(수)-22일(금) 저녁 <장소>오클랜드한인교회

◀착한 시인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이기철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이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오클랜드에 있는 Cherry Grove를 아시는지요?. 요사스러울 만치 화알 짝 핀 벚꽃 길.
화사한 벚꽃에 취해 있으면서 한편으론 곧 스러져야 할 꽃들이기에 웬 지모를 서글픔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아름다움은 너무 한꺼번에 받은 찬사가 힘겨워 일찍 사라져야 하는게 순리인가 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은은한 제 빛깔로 오래동안 아름다운 그런 꽃처럼 사람도 깊어 오래가는 마음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수를 즐기다 깨어난 아들에게는 아빠 혼자 벚꽃 구경간 것이 궁상스럽게 보여 웃었다는군요.